

10/13(수) 욱기 묵상 6

욕기 3:1-26

말씀 읽기와 묵상 - 오늘 본문을 읽거나 들으시고 먼저 말씀을 3분 정도 침묵 가운데 개인적으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욕기서 3장의 내용은 욱기서의 서론이 마치고 욱의 탄식과 친구들과의 변론이 시작되는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욕의 저주

욕은 자신에게 임한 고난으로 인해 그동안 자기의 아내처럼 하나님을 욱하거나 입술로도 주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욱은 그의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1절, “그 후에 욱이 입술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욱은 먼저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게 됩니다. 여기서 욱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한 것’은 그에게 닥친 재앙이 그가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기보다도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기 보다 자식이 먼저 죽으면 ‘그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욱은 자식이 한 명도 아니고 열 명의 자녀들을 모두 하루 아침에 잃게 됩니다. 그런 욱은 어쩌면 자기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죄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욱은 차라리 자신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기의 자식들도 태어날 일을 없었고 그것이 더 좋았겠다고 후회한 것 같습니다(2-10절). 비록 욱은 이 땅에 태어난 것과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저주이거나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도 자기의 생일을 저주했기 때문입니다(렘 20:14-18,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 하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 같이 되었더라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더라면, 종을 뺏았더라면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날을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니라.”). 즉 욱과 예레미야가 저주한 ‘생일’은 매년 그들에게 돌아오는 생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태어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태어난 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저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저주는 그저 욱의 고통에 대한 수사학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욱은 지금 자신의 환난에 대한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욱이라 할지라도 그도 자신의 고통을 마음에만 담아두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는 것이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내면 세계에는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또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상한 감정을 건강하고 성숙하게 잘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죽음

욕은 이제 자신의 출생을 후회하고 나서 비록 부모로 인해 자신이 태어나게 되었지만 이제는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다고 하며 죽음을 사모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죽음이 이 땅의 모든 고통과 번뇌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13-15절,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폐허를 일으킨 세상 임금들과 모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을 채운 고관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17-19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요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쉬를 얻으며 거기서는

같은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 하지만 욥의 딜레마는 하나님께서 그의 바람대로 그를 죽도록 허락하지 않으시고 고난 중에서도 그의 생명을 지켜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20절, “어찌하여 고난 당하는 자에게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욥 2:6,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문제는 욥이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가 겪은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 그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24-26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러한 욥의 고백을 통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아무리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도 우리처럼 이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불안해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모두가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욥이 그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 사탄의 말처럼 하나님을 욕하거나 원망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처지를 비판하면서 고통하며 애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욥은 자신이 이유없이 당한 고난을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10-11절). “어찌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십니까?” 욥은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 직접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은 하나님께 응답을 듣기 전에 그의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이제 그들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욥의 질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 아니라 그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온 신정론적 질문입니다. 우리는 욥이 욥기서 3장에서 ‘생명과 죽음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을 볼 때 그의 믿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욥이 욥기서 1장과 2장에서 고백했던 믿음과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욥 1:20,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 2:10,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욥을 보시고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하나님은 욥에게 바로 대답해 주시지는 않으셨지만 그를 바라보시고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애 3:32-33,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에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적용 - 오늘 묵상을 통해 성령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시고 다짐하도록 해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의 다짐과 기도제목

1. **적용의 기도:** 오늘 묵상을 통해 내게 주시는 말씀을 개인의 신앙과 삶에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2. **우간다를 기도:** 아프리카 최대 난민 수용국으로 이미 약 150 여만 명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우간다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2,000 명을 추가로 수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난민수용에 대한 우대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비록 우간다의 경제 상황은 열악하지만 유엔난민기구와 미국의 지원으로 각국에서 들어온 난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힘쓰고 있다. 우간다 사회와 현지 교회가 들어온 난민들을 지속적으로 환대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길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3. **교회를 위한 기도:** 우리 교회에 속한 햄튼 1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 **선교지를 위한 기도:** 탄자니아 박재덕 선교사님/가정/사역지를 위해서 중보합니다.